

“아름다운 섬진강 만들어요”

클린순창만들기추진단, 섬진강변 쓰레기수거·환경정비 실시...작년 호우 휩쓸자리 복구전력

순창군이 클린순창만들기추진단을 활용한 섬진강변 정비로 섬진강이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질적인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에 대한 정비 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 쓰레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로 클린순창만들기추진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11개면 산간지역과 하천변 등에서 오랫동안 버려진 생활쓰레기 194톤을 수거하며 순창군 환경개선에 일조했다.



생활쓰레기나 잡목 등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예전의 섬진강의 모습을 되찾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클린순창추진단이 지난 2월부터 본격 투입되어 섬진강변을 따라 대대적으로 집중 수거해 13일 현재 50톤의 쓰레기를 수거, 섬진강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섬진강 수해복구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다”면서 “앞으로 섬진강

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깨끗한 자연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4월까지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kg당 100원~300원, 폐농약용기의 플라스틱 용기류는 kg당 1,600원, 봉지류는 kg당 3,680원 등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이 13일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신청하세요”

코로나 극복 영립지원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

순창군이 13일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립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어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립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한정)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하여 임가면적 300㎡~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

에 등록)의 경영주(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에게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선불 총정가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레저, 의류,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현수 산림공익과장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산림청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초과시 지급이 마감되니 관내 대상 임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농업인 대상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남원시는 코로나 19로 영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분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받고 있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와 코로나 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 2가지 종류이다.

남원시 바우처 신청 대상은 3,174 농가로,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 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농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말 사육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이며, 신청기간은 온라인으로 4월 12일, 방문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대상 농가는 출하실적 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강조 남원시 농정과장은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사업’ 23일까지 접수

남원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 관리,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및 우렁이 등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키토산, 미생물추출물 황, 천적 등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등록된 친환경농자재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무농약인증 이상의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남원시는 현재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외에 앞으로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육성자재 신청기간은 오는 4월23일까지 약 2주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원시청 친환경 담당자(620-65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선 남원시청 원예산과장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의 기초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점포 모집

임실군이 동네 슈퍼의 경쟁력 강화 및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동네 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한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혼합형 점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사근로자 5인 미만)부합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매장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지역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제외)에 해당

하는 동네 슈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16일까지 임실군 경제교통과(☎063-640-2401)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2개 점포를 선정하고, 선정된 점포는 스마트슈퍼 구축 및 컨설팅·교육·마케팅 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유통환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모집

남원시는 도시재생주민자치조직 발굴·육성을 위한 2021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동버스터미널지구(동충·죽항) 내 지역 현인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보는 남원시 소재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분야는 유희공간 및 빈집활용을 위한 ▲공간개선 및 활용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용품 제작·나눔 등의 ▲도시재생 공동체 활동 동충·죽항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마을개발활동 이외 사업구역 내 공적목적으로 수행되는 ▲타 공모활동으로 구성된다.

공동체별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4월 19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63-635-93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 및 사업취지 인내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4월 14일(수) 저녁 7시 남원시 도시재생센터 1호 빨간벽돌동(건립 88)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경제산업위 활동

남원시의회 243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환)는 12일 남원시를 상대로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종관 의원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시 인규유임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지홍 의원은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있어 가격, 물량 등의 데이터가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신뢰도가 형성된다며, “사업이 도래되지 않도록 신인들이 계속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병기 의원은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사업에 있어 고용과 인력채출, 생산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